# ‘위기를 기회로’…한국 최고의 ‘명품대학’ 기틀

## 취임 3년째 맞이하는 서재홍 조선대총장

조선대학교 서재홍(제15대) 총장이 취임 2년 만에 위기의 대학을 ‘한국 최고의 명품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서재홍 총장은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신입학생 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서 ‘소통과 화합을 통한 혁신과 통합,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대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2년의 상반기 임기를 마치고, 24일 하반기에 임기에 들어간다.

서 총장은 취임 직후에 대학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진단을 통해 구조개혁안을 마련했으며,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대학 구조개혁과 혁신을 강조하는 조선대 발전계획 ‘CU Vision 2020’을 선포했다.

### 정부재정지원 5관왕 영예…1000억 재원 유치
### 올 취업률 광주·전남북 1위…전국 10위 성적
### 33개국 대학·기관 MOU체결 국제교류 선도

◇**대학 경쟁력 확보…1000억원 넘는 재정지원 유치**=서 총장은 취임과 함께 대학의 특성화와 지속적인 구조개혁의 방향을 ‘잘 가르치는 대학, 내실 있는 학부교육’으로 설정했다. 이어 개교 이래 처음으로 15개 유사학과를 8개 학과로 통합하는 획기적인 학문 단위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매년 학과 평가를 통해 학과(전공) 폐지와 정원 감축을 하는 상시 구조개혁 체제로 전환해 대학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 같은 개혁을 바탕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대학 재정지원 대형 국책과제 가운데 교육(ACE사업,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구(CK-1사업 및 BK21플러스사업), 산학협력(LINC사업) 부문을 모두 석권해 그랜드슬램의 대기록을 달성하면서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의 삼각체제를 구축해 조선대가 한국 최고의 명품대학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육성사업, 대학 특성화(CK-1)사업, 2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BK21플러스사업 등 정부 5대 재정지원사업에 모두 선정된 ‘5관왕’ 대학은 조선대를 비롯해 성균관대, 전북대, 충북대, 한양대, 충남대, 영남대, 중앙대, 아주대, 서강대, 계명대, 가톨릭대 등 전국에서 12곳이다.

광주·전남·제주권에서 유일하게 ‘5관왕’ 대학의 대기록을 달성한 서재홍 총장은 이밖에 뿌리산업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치매조기진단기술개발사업 등 대형 정부지원사업을 다수 유치해 2012년 9월 취임 이래 1000억원이 넘는 외부자원을 유치해 획기적인 대학 발전의 발판을 구축했다.

◇**상승세로 전환한 취업률**=‘중·장기 취업대책’을 마련해 졸업생 취업률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 입학에서부터 졸업까지 책임지는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201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선대는 취업률 55.4%로 ‘가’그룹(졸업자 3000명 이상) 34개 대학 가운데 전국 10위와 호남 지역 1위를 차지했다. 조선대는 2012년에도 취업률 57.3%로 전국 10위를 기록했으며 2013년에도 취업률 52.6%로 전국 15위, 광주·전남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해마다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조선대학교는 동아일보와 채널A가 딜로이트컨설팅과 함께 실시한 ‘2014년 청년드림대학’에도 선정, 취업 및 창업 지원 역량과 취업률이 우수한 대학으로 인정받았다. 한국경제신문과 취업정보 월간잡지 ‘캠퍼스잡앤조이’가 기업 인사담당자와 헤드헌터들을 대상으로 한 뛰어난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 조사에서 지방 사립대 가운데 인문계열과 경상계열에서 각각 3위, 이공계열 5위를 기록해 명문대로서의 저력을 인정받았다.

◇**‘국내를 넘어 세계로’**=“지역대학의 한계 극복은 국제화로 가능하다”는 모토로 국제화 지표를 높여 전국 상위권에 진입하고 나아가 국제교류 선도대학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012년 9월 22개국 124개 대학 및 기관에서 2014년 9월 현재 33개 국가 180개 대학 및 기관으로 MOU 체결을 크게 확대했으며, 앞으로 3년 안에 교류 대학을 2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특히 지금까지 교류가 없었던 아프리카·인도 대학들과 MOU를 체결해 교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유학생 수요가 많은 중국, 베트남 등지의 전문대학과 고등학교에 조선대 유학반을 개설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유학생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 민립대학인 조선대의 설립 역사와 1·8학원민주화운동의 기억과 정신을 계승하고 구성원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선대 70년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조선대 역사관을 본관 1층에 조성하고 있다.

총장이 먼저 교직원을 존경하고 학생을 사랑해 행복한 대학을 만드는 ‘섬김의 리더십’을 구현하는 서재홍 총장은 조용한 가운데서도 강력한 구조개혁과 과감한 정책추진으로 ‘대학의 위기를 기회로 만든 총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재홍 총장은 지난 2년간의 업적을 바탕으로 남은 임기 동안 대학 발전에 한층 박차를 가해 ‘창학 100년’을 향한 재도약의 원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교직원 수급 정책과 조교 제도 개선 그리고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시스템과 재정 안정의 발판을 마련해 지역발전의 중핵 역할을 담당하는 호남 제1의 거점대학이자 한국 최고의 명품대학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서재홍 총장은 “조선대 VISION 2020에서 학생 중심의 잘 가르치는 대학을 으뜸 전략으로 삼고 대학 특성화와 구조개혁을 연계한 것이 그랜드슬램의 대기록을 달성하는 동력이 됐다”면서 “대학 종합 경쟁력에서 전국 TOP 10의 입지를 다진 여세를 몰아 전면적 교육과정 개편과 재정건전성 확보로 개교 100주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학교 서재홍(제15대) 총장이 취임 2년 만에 위기의 대학을 ‘한국 최고의 명품대학’으로 끌어올리는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 호남대 수시 경쟁률 광주·전남 1위

### 평균 6.07대 1…지난해보다 72.4%P 큰 폭 증가

### ‘특성화 6관왕 돌풍’…보건·사범계열 학과 초강세

201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호남대학교(총장 서강석)가 광주·전남 4년제 대학 가운데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호남대에 따르면 지난 18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1537명 모집에 9322명이 지원해 6.07대 1의 높은 경쟁률로 광주·전남 4년제 대학(1000명 이상 모집 대학) 중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수시 1차 지원자 5408명(3.7대 1)보다 무려 72.4%가 늘어난 3914명이 증가한 것이다.

교육부의 ‘2014 지방대 특성화사업’ 발표에서 6개 사업단이 선정되면서 ‘특성화 명문’으로 입지를 굳힌 호남대는, 이번 수시모집에서 5년간 총 190억여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창의형 융복합인재를 양성하게 되는 12개 특성화학과는 물론, 일반 학과에까지 수험생들이 대거 몰려 ‘특성화 명문’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했다.

학과별로는 취업에 유리한 보건계열 학과와 사범계열 학과들이 초강세를 보였다. 일반전형 응급구조학과가 8명 모집에 250명이 지원해 31.3대 1, 물리치료학과가 13명 모집에 402명이 지원해 30.9대 1로 광주·전남지역 1위와 2위 경쟁률 학과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또 치위생학과가 13명 모집에 331명이 지원해 25.5대 1, 간호학과가 35명 모집에 695명이 지원 19.9대 1, 유아교육학과가 16명 모집에 316명이 지원해 1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보건, 사범계열과 특성화학과를 비롯한 45개 전 학과에 응시자가 대거 몰려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호남대는 10월 2일 면접대상자를 선발하는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하고, 8일 면접을 실시한 후 10월 17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방과후학교 박람회 전대사대부중 부스에서 김현중(사진 오른쪽)교장이 장휘국 교육감(가운데)에게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 전대사대부중 ‘방과후학교 대상’ 최우수

전남대사범대학부설중학교(교장 김현중)는 최근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6회 방과후학교대상’ 시상식에서 학교부문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 삼성꿈장학재단, 중앙일보 주관으로 실시한 방과후학교대상은 열정과 헌신으로 ‘행복한 방과후학교’를 만들기 위해 힘쓴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교사·강사, 학교, 지역사회파트너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학교상은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최초로 전대사대부중이 수상했다.

전대사대부중은 ‘솔솔(soll soll) 나눌수록 행복한 착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지식나눔 지역연계 방과후학교(Linking), 기회나눔 열린 방과후학교(Opening), 재능나눔 공유 방과후학교(Sharing), 사랑나눔 돌봄 방과후학교(Loving)를 운영해 학력향상 및 재능개발, 체력단력이 겸비된 방과후학교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교생의 35%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인 전대사대부중은 저소득층 방과후 학력향상프로그램인 삼성드림크래스 운영, 학습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자존감 향상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했으며, 대학 사회적기업(라온)의 우수강사가 실시하는 수업과 대학 및 기업 연계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는 등 교육 소외계층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